

무거워진 차례상… 전통시장·대형마트 나눠 구입해야 알뜰

<채소·정육·수산>

<과일·가공품>

유통·지원책 등 채널 따라 비용 차이 정부, 12일까지 농할쿠폰 650억 발행 “추석 가까울수록 더 저렴하게 구매”

팬데믹 2년 만에 맞은 엔데믹(풍토화) 첫 명절을 맞는 가운데, 치솟은 물 가로 추석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농수산물 비축분을 대대적으로 풀어 주요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고물가에 서민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5일 <메트로경제>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유통단체와 정부의 지원책, 기업의 할인 정책 등으로 추석 성수품목은 채소·정육·수산품은 전통시장이 저렴한 반면 과일과 가공품은 대형마트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할인 행사가 14일까지 쏟아져 장보기 전 방문 할 곳의 홈페이지를 살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알뜰한 장보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09년 4월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에 이르렀다. 부문별로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상승률이 전월과 같은 8.0%로 지난해 2월(9.3%) 이후 최고치를 유지 중이다.

높은 물가는 고스란히 차례상에 반영됐다. 올해도 소비자단체·기관들은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 장보기가 저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물가정보는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전년 대비 약 9.7% 올라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은 9.7% 오른 30만1000원, 대형마트는 6.4% 오른 40만8420원으로 발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번 차례상 비용은 평균 31만8045원으로 지난해 대비 6.8%(2만241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2171원, 대형유통업체는 36만3920원이었다.

명절맞이 알뜰한 장보기는 채널별로 저렴한 품목 차이가 커 한 곳에서 일괄 구매하기 보다 나눠 구입하는 편이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가격동향 조사기관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8.6% 저렴했는데, 일부 품목은 대형마트가 더 저렴했다.

특히 채소(47.7%), 수산물류(24.4%), 육류(23.1%)는 전통시장에서 더 저렴하다. 정부가 끈 비축물량과 지



추석을 앞둔 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민들이장을 보고 있다.

자체가 발급하는 할인쿠폰 및 지원책이 전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과일은 이른 추석에 햇상품 출하가 늦어지며 상품간 품질 격차가 크게 벌어져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대추와 포도를 제외한 사과, 배, 곶감 등은 대형마트가 최대 21.5% 저렴하게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과일류의 가격 차이율은 2.8%다.

명절 장보기 전 혜택 확인은 필수다. 정부는 오는 12일까지 한 달 수십억 규모로 발행하던 농할쿠폰을 650억원치 발행한다. 대형마트·중소형마트·친환경마장·온라인몰에서는 1인당 2만원까지, 로컬푸드 직매장과 전통시장은 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에 나서고 대형마트에서는 기업이 할인 총력전에 나설 예정으로 방문 전 혜택을 확인하면 좋다.

이달부터 각 지자체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늘리고 쇼핑몰 할인 이벤트 등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혜택과 이벤트 등은 방문 전 지자체 홈페이지를 살피면 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사과, 배, 양파, 대파 등 9개 성수품 공급물량을 3년 평균 거래물량의 110% 수준으로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요 농·축·수산물 20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해 정부에 가격상승품목 수급량 조절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12일까지 일부 전통시장(95곳)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오는 30일까지 5% 할인율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개인한도를 70만원, 10% 할인율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개인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대형마트 업계도 오는 14일까지 추석을 맞아 자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각 대형마트는 정부가 제공하는 할인에 자체 할인을 추가하는데, 미리 확보한 상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저렴하게 행사가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간장, 식용유 등 명절상품 200여 품목을 할인한다. 특히 축산팀이 7월부터 전국 공판장을 통해 100톤 이상 확보한 물량을 토대로 국내산 돈육에 대해 최대 36%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정부 차원에서 주요농산물에 20% 안팎으로 할인을 적용 중인 데 더해 추가 자체 할인까지 나서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더불어 간편 제수용품을 10% 가량 전년 대비 확대 준비하고 가공식품 300여 품목을 할인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장을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2022 추석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열어 다양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명절 선물세트와 신선식품은 물론 주방용품까지 총망라한다. 행사 기간 동안 카톡 플친을 대상으로 1만 5000원의 할인쿠폰도 증정한다.

추석에 최대한 가까운 날을 잡아 쇼핑하는 것도 티이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선임연구원은 “현재 육류를 제외한 채소, 과일 등 대부분의 제수용품들이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품질은 낮지만,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있다”며

“좋은 품질의 재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최대한 추석에 가까운 날에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달부터 확보한 비축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으로 배추·무·사과·배 등 명절 주요 성수품 20개 품목을 평상시 보다 1.4배 늘려 공급 중이다. 이달 1일 까지 계획 물량의 78.1%에 달하는 18만 2000톤(t)을 풀었으며 8일까지 배추·무·양파 등을 3905톤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도 1000톤 규모의 비축 수산물을 시중에 방출한다. 명태 332t, 오징어 202t, 고등어 107t, 갈치 165t 등이다. 구이나 조림용 형태의 상품 외에도 동태포, 절단 동태, 국물용 멸치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에서 끈 물량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통해 시장에 풀린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 ● + ○ ×

**Ai 시대를 넘어
Ai 세대로**

CAU

모두가 AI 시대를 외칠 때,
중앙대학교는 AI와 함께 살아갈 세대에 주목합니다
몇 번의 성공을 넘어 평생 성장하며
내일을 이끌어 갈 AI 세대를 위해
중앙대학교는 내일의 세상에 맞는
새로운 교육, 새로운 인재를 만듭니다

DO! THE BEST

CAU 중앙대학교

2022.09.13.(화) 오전 10시 ~ 16.(금) 오후 6시
http://admission.cau.ac.kr 02)820-6393